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교육의 방향

이 승 희(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 석사과정) · 문 숙 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일과 가정의 균형 및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가족친화교육의 필요성과 현황과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사회나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되, 가족친화사회조성이 라는 목적에 맞는 일-가정 균형을 도울 수 있는 가족친화교육의 내용 구성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교육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가족친화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내의 2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앙, 광역시의 센터의 가족친화교육의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황은 2009년 실시되었던 가족친화교육의 빈도를 파악하였고,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주제영역에 있어 정현숙(2001)의 가족생활교육 분류틀을 이용하여 재분류 하였다. 이는 가족생활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분야의 분석단위를 연구한 결과로써 의미가 있는 분류틀을 선정하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따라 개인, 관계, 가족체계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영역에 따라 가족생활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재분류하였는데, **개인영역**은 가족을 구성하는데 핵심인 개인과 관련된 영역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개인교육으로, 개인성장교육, 성교육, 가족자원관리교육, 건강교육, 은퇴 및 노후준비교육등이 해당된다. **관계영역**은 가족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영역으로 개인과 개인, 가족간 관계를 향상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다.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 안의 모든 관계에 접근하는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영역**은 가족의 단위에 접근하는 영역으로 특별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적응과 문제해결,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교육이다. 한부모/이혼가족교육, 새터민가족교육, 다문화가족교육등이 포함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하고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그 수가 적었으며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가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2009년부터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족친화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도였다. 둘째,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의 구성에서 개인영역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으며 압도적인 빈도로 개인성장교육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로 가족관계향상교육의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순이었다. 이는 가족친화교육이 목표로 하는 내용이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수가 너무 작아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기업 또는 기관 내에서도 활발히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가족친화교육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과 가족,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통합적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한 이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실재를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겠다.